

과목명:대학글쓰기

학과명:사회복지학과

이름:김민중

학번:202211407

평: 1) 전체적으로 교양과목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작성에 부합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음. 2) 각주와 참고문헌 없음. 3)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함(분량 부족) 4) 주장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뒷받침이 없음.

제목: 약리적 부작용이 없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에 반대한다

1. 서론

만약 약리적 부작용이 없이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생각에는 사람은 모든 감정을 다 느끼며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을 극복해냈을때 희열감도 얻습니다. 이것을 원동력으로 일도하고 공부도하고 발전해가며 살아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본론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 일상생활에 대중화가 되어 이 세상 모두가 그걸 복용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있다면 세상에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 다면 불편한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일텐데 이로 인해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 상태 계속 멈춰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발전을 못하고 세상도 발전을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하거나 또는 발전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 대중화가 된다면 이모든게 필요없고 그저 약 하나만 먹기위해 사는 그런 무의미하고 발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버립니다.

2. 2.

감정을 기분이 좋다라는 것만 느끼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합니다. 사람은 여러 감정을 느끼는데 거기에는 분노,슬픔,아픔,불안,창피,기쁨,사랑등 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이중에 부정적인 감정도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이 자신의 속마음인데 못느끼게 되면 사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없애버리는것입니다. 그것은 불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을 먹지않는 사람을 이해 못 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슬픈,불안은 약을 먹는사람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먹고싶지않아 먹지않을 수 도 있을것인데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전혀 공감해주지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건 그저 약을 권유할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약을 복용하지않는사람들을 더 큰 아픔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2. 4.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면 남용이 되어 약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을 복용한다면 결국 그약에 의존하여 금전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기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않고 돈을 구할텐데 범죄가 생길 수 도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약영향을 끼치게되는 것입니다,

3. 결론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은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활용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을 불러오는 약이 될것이며 그 약을 활용할려면 정말 극심한 우울증등 정신질환등을 가지고있다면 의사에 소견서와 처방전을 함께해 처방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참고문헌